

# 행복한 가정, 이전 환상인가?

## 가정의 달에 되묻는 가족의 의미

최근 선보인 유미리의 《골드러쉬》(김난주 옮김, 숲)는 관계망이 모두 파괴된 현대 가족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는 14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다. 소년 카즈키는 금권과 권력의 상징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희귀병을 앓는 형 히데키, 가족 없이 자란 여자친구 요코, 야쿠자인 카나모토 등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가족을 꿈꾸지만 모든 오이디푸스의 운명처럼 스스로 파멸된다.

자수를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히데키·요코와 동물원에 간 카즈키는 코끼리 우리 앞에서 예전에 찍은 가족사진을 버리고 새로 가족사진을 찍는다. 유미리는 소년의 환상을 통해 가족이라는 울타리만 무너진다면 결국 모두 타인이 아니냐는 냉혹함을 보인다. 과연 전통적인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 함께 사는 타인, 가족

올란다 카탈베르트-슈미트의 《아빠는 해도 된됐어!》(유영미 옮김, 친구미디어)와 우테 요르크의 《넌 날 미치게 해!》(모은경 옮김, 산성미디어)는 가족은 함께 사는 타인이라는 유미리의 주장에 절반 정도 동의한 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가족의 의미를 되묻는 책들에서 가족관계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

고 말한다. 《아빠는...》는 아이의 양육을 통해 드러나는 부부간의 갈등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역사적 문제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생산적으로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하게도 제대로 싸우는 일이 변화의 단초임을 지적한다.

《넌...》 역시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부부 갈등을 다룬다. 이 책은 배우자는 “당신과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라”라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한다. 변경의자를 세워 두느냐, 아래로 두느냐를 비롯해 집에서 담배 피는 문제, 가끔씩 잠자리에 들 때 생색내는 듯한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났을 때 등 우리가 보기에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대안을 제시한다. 부부라는 관계가 인간보다 우월할 게 없다는 게 이 책의 결론이다.

하지만 현명한 부부일지라도 자식 또한 어떤 경우에 타인일 수 있다는 가정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듯하다. 23명의 교수가 쓴 《그래, 너희 뜻대로 해라》(황금가지)는 만화가가가 되겠다며 자퇴한 아들, 반에서 20등에 머문 딸,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아들, 과외공부까지 열심히 시켰건만 ‘날 좀 제발 내버려줘’라고 소리치는 아이 등을 둔 부모들의 경험담을 담았다. 이 경험은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아니면 아이들은 마음의 눈을 감아버린다는 교훈을 준다. 결국 만화가가가 되겠다는 아들의 말을 들어주고 자퇴를 허락한 서강대 정두희 교수의 경험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사이토 사토루의 《아버지가 변해야 가족이 변한다》(이규은 옮김, 종문화사)는 일본의 경우이긴 하지만 가족이란

결국 아버지의 선언으로 형성되는 픽션, 즉 환상에 불과함을 이야기한다. 정신과의사인 글쓴이답게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죽인 아버지 같은 극단적인 일탈의 경우를 예로 들며 논의를 전개하긴 해도 그런 시행착오의 사례를 통해 이 시대에 맞는 아버지상을 다시 정립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반면 이들의 시각과는 달리 장종수의 《가시고기의 사랑》(사람과사람), 박상우의 《따뜻한 집》(샘터), 임옥희의 《바보엄마의 행복만들기》(아래0)는 아이를 처음 낳아 키우면서 비로소 가족이란 관계에 눈을 뜨는 부모의 이야기다. 이들이 아이를 통해 발견한 가족이란 “그것 자체로 온전한 감동”(박상우)이어서 자신도 “절제한 자기 인내와 회생, 그리고 책임을 다하면서 점점 부모답게 커가기”(장종수) 때문이다.

《가시고기의 사랑》은 98년도 올해의 좋은 아버지로 선정된 동화작가 장종수씨가 새힘이와 한결이 두 아이를 키우며 겪은 이야기다. 집 떠난 아내의 뉘까지 도맡아야 하는 처지지만 절망하지 않고 아이와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다양한 일화를 통해 드러난다. 《따뜻한 집》은 소설가 박상우씨가 쓴 육아 일기다. 전업작가의 처지라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만, 어렵사리 아들 정호를 키워가면서 집이 어떻게 따뜻해지는가를 배우게 된다. 《바보엄마의 행복만들기》는 23년간 아들을 키우며 쓴 일기를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들려준다.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매일 빼놓지 않고 기록했기 때문에 아들의 성장에 따라 모자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소상히 밝혔다.

### 아이를 통해 발견하는 가족

육아일기인 이들 책은 한편 자신의 삶에 들어온 ‘아이’라는 낯선 존재와의 일상적인 관계를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알아가는 아버지·어머니의 성장기이기도 하다. 가족이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성원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배워야 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래, 너희 뜻대로 해라》에는 전북대 신



광철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이 실렸다. “10대에 들어선 자식이 있으면, 집에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병자가 있거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함에 따라 자식에게서 타인을 느끼지만, 자식은 어느 시기를 지나면 부모에게서 가족을 느끼게 된다. 《어머니의 사랑은 동그라미처럼 시작도 끝도 없다》(책 캔필드 외 지음/김원영 옮김, 이레)와 《아버지, 당신도 어머니가 그림엽서니까》(김삼미 엮음, 생각하는 백성)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았다.

《어머니의...》는 범부에서부터 조지 부시 전 미대통령의 이야기까지 자식의 눈에 비친 다양한 어머니의 모습을 담았다. 자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고 자식을 위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가는 강한 어머니, 반항적인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를 지혜롭게 다독여 주는 어머니, 도시락에 편지를 넣어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어머니 등 독자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어머니상이 그려진다.

《아버지...》는 서정주·김수환·채플린·힐데린 등 위인 스물 두 명이 낳긴 어머니 이야기다. 아들의 재능을 한 눈에 알아본 마르크 샤갈의 어머니, 아들이 앞으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파가니니의 어머니, 아들이 지어낸 얘기를 들으며 울음을 터뜨리던 카잔차키스의 어머니 등의 모습이 담겼다.

가족에 대한 감정은 복잡하고 자주 변한다. 가족은 때로 지옥이 되기도 하고 때로 한 인간을 승화시키기도 한다. 최근 나온 이들 책은 우리가 어떤 가족관계를 배워가느냐에 따라 좋은 가족, 나쁜 가족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 김연수 기자